

TV, 책 때문에 고민하다 시청·청취율과 공익적 명분 충족할 묘수 없나



개편 바람 불 때마다 폐지 혹은 축소 1순위

MBC TV <느낌표>가 방송가의 이례적인 책바람을 몰고 온 게 엇그제 일이다. 그러나 잠깐의 이벤트였다는 해석이 대부분이다. 그 바람에 방송가의 책 인프라가 구축되는가 했으나, 교양 프로그램 프로듀서들은 고개를 내젓는다. “더 이상의 책바람은 없다. 냄비처럼 달아올랐다 금세 식어버렸다”는 반응들이다. 방송가에선 개편 때마다 책 관련 프로그램들을 폐지 혹은 축소 1순위로 올려놓는다. MBC TV <행복한 책임기>는 오래 전 폐지돼 <즐거운 문화읽기>로 흡수됐고, KBS 라디오 <책마을 산책>도 <문화포커스>라는 큰 옷으로 갈아입었다. 분위기가 이러하니 개편 시 생존해 5월부터 새단장을 하게 된 SBS 라디오 <책하고 놀자>의 남중권 프로듀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단일 프로그램으로 빼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5퍼센트 이하의 시청률, “전파 낭비 아닌가?” 생각도

각 방송사 편성국의 책 프로그램의 폐지, 축소 이유는 당연히 낮은 시청률, 청취율 탓이다. 한 관계자는 “5퍼센트 이하로 푹 떨어지니까 전파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라고 사정을 말한다. 방송위원회측에서 정한 방송사 교양 프로그램 비율 규정은 특별히 없다. 오락 프로그램을 전체 프로그램의 50퍼센트 이

상 제작, 방송하지 않겠다는 규정만 지키면 나머지 편성은 방송사의 자유재량이다. KBS처럼 ‘공영방송’을 표방하거나, EBS처럼 ‘교육방송’이 아닐 바에야 교양 프로그램 중에서도 시청률, 청취율이 ‘바닥을 건다’는 책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는 특별히 없는 것이다. 물론 방송사들이 의미 있는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려는 의지가 없다는 건 아니다. 다만 대중의 호응이 전무한 상황에서 방송사 입장에서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MBC TV 편성국 이길섭 부장은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좋은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적극성을 보여주긴 힘들다”고 밝혔다. 결국 존폐위기에에서도 생존하고 있는 책 프로그램들은 대개가 ‘방송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익적 명분에서 제작되는 것들이다. 물론 애초부터 흥행성이 없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방송사에선 시청률, 청취율을 특별히 문제삼지 않고 있으며 제작진들도 대중의 호응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

합병 모색, 대중화 바람, 정공법 구사 등 다양한 대안들

그렇지만 아무리 공익적 차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대중의 호응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방송사 입장에서선 흥행력이 떨어지는 책 프로그램을 문화 프로그램과 합병할 것을 시종 검토한다. MBC TV <행복한 책임기>담당 프로듀서였던 김지

완 씨는 “책 프로그램은 언제라도 하고 싶다. 근데 이상하게 책만 소개하면 안 본다. 그나마 음악, 영화, 미술 등은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 프로그램 안에 기존에 하던 책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프로듀서는 현재 담당하고 있는 <즐거운 문화읽기>의 3분의 2가 책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음악, 미술 콘텐츠가 더해진 신新 <행복한 책읽기>나 다름없음을 알렸다.

축소·합병 바람이 부는 시점에서 지난 5월 개편을 한 <TV 책을 말하다>의 파격 변신은 여러모로 주목을 끈다. 특히 김미화, 장정일이라는 대중성 있는 연예인과 소설가를 진행자로 결정했다는 것부터가 이례적이다. 목요일 저녁 10시 프라임 시간대에 편성을 해놓았단 사실 또한 놀랍다. “MBC TV <느낌표>에서 김용만, 유재석이란 대중적인 개그맨을 등장시켜 책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생경한 일이었는데 공영방송인 KBS에서 대중화 시도를 했더니 놀랍다”는 평가가 많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도 과거엔 3~5퍼센트에 불과한 시청률을 유지하면서 존재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방송사측은 인내심 있게 마니아층의 호응을 기다렸고, 지금에 와서 프로그램을 폐지시키는 대신 차별화 노선을 택했다. 배기형 프로듀서는 “책만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론 대중성을 강화했다”고 밝히면서 지나친 엄숙주의와 대중·오락주의 사이에서 중도노선을 택했음을 강조했다.

진지한 접근과 엄숙하고 정적인 분위기 고수하는 경우도

물론 대중화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방송사측은 “책 좀 본다는 식자층들은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인다”며 행여 프로그램이 상업적으로 되거나 지나치게 가벼워질까 우려해 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엄숙하고 조용한 느낌으로 책을 알리며 정공법을 구사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CBS와 EBS의 책 프로그램들은 매체 특성상 진지하고 정숙한 느낌의 프로그램으로 마니아들의 지지를 받는 쪽을 택한다. CBS 라디오 <행복한 책읽기>의 백애리 작가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번뜩이는 기획 아이디어가 있는 프로그램도 좋지만 진지한 접근도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책읽기>는 엄숙하고 정적인 분위기의 콘셉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나름의 ‘고집’을 부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지완 프로듀서는 “구색 맞추기 책 프로그램은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어렵게 존속되는 프로그램들이니 만큼 일단 방송이 결정되면 차별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의 피드백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제작진측에서 어떤 방법으로 책을 알릴까를 더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TV와 책의 안 맞는 궁합, 책 바라보는 대중인식도 문제

문화평론가 김동식 씨는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책과 텔레비전은 본래 어울리지 않는 매체다”라고 설명하는 김씨는 텔레비전을 일종의 콜로세움 미디어(콜로세움에 모여 검투사들의 경기를 보는 대중들처럼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집중하는데 이때 대중들은 등장인물들의 권위나 외모 혹은 생동감 넘치는 캐릭터 때문에 시선을 고정하게 된다)로 규정한다. 김씨의 말처럼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시선을 고정할 요소가 없는 이상 1분 이상 계속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 책 줄거리만 요약해도 최소 3분에서 5분이 소요되는 책 프로그램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이다. 더구나 텔레비전의 교양적 기능을 이용하고 이를 습득하는데 전혀 익숙지 않은 한국인들에게 책과 텔레비전의 공존은 낯설고 재미없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굳이 독립된 프로그램이 아니라도 방송계측에서 장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독서문화 저변을 확대시킬 여러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란 전직 언론인 성일권 씨의 말도 새겨들어야 한다. 오랜 현지 체류 경험을 통해 프랑스 사정에 정통한 성씨는 “프랑스에선 뉴스 말미에 몇 권의 책을 소개하는 게 일반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제작진의 장사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만으로 책 관련 프로그램의 호응도를 해석할 순 없다. 애초에 큰 수요를 예상하기 힘든 책과 텔레비전의 공존이었다는 것과 오락 위주로 매체의 가치를 논하는 한국인들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해결의 열쇠는 대중 쪽에도 있다. 텔레비전을 단순한 오락거리나 정보습득 창구로 여기는 데에 생각을 가두지 말고 지적 담론 형성을 하는 매체로서의 기능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스타’급 북메신저 내세우는 전략도 유효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곳곳에 산적해 있다. 김동식 씨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신뢰감 있는 북 메신저의 출연도 필요하다고 “서양의 경우 책 프로그램 진행자의 캐릭터에 기대어 프로그램 존속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한다. 실제로 프랑스의 피보나 독일의 라니츠키 같은 저명한 진행자가 진행하는 책 프로그램들은 이들의 행보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이 직접 읽고 추천한 도서들은 어떤 책들보다 신뢰감 있는 책으로 인정받는다. 김씨는 “권위주의 시대를 보내고 신뢰의 시대를 맞이한 마당에서 신뢰감 있게 좋은 책들을 가려줄 수 있는 북 메신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민**

취재 김철연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